

‘AI 스피커’ 글로벌 전쟁 애플도 움직이다

‘시리’ 활용한 무선 AI 스피커 ‘홈팟’ 공개
아마존 에코·구글 홈과 주도권 경쟁 돌입
국내선 네이버·카카오 AI 기기 출시 예고



인공지능(AI) 스피커 경쟁에 애플이 참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음성인식 AI의 거실 점령 글로벌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애플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매케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무선 AI 스피커 ‘홈팟’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무엇보다 고음질 홈스피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애플뮤직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애플의 AI 비서 ‘시리’를 이용해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플에 따르면 시리를 이용해 음악검색은 물론 뉴스, 날씨 등의 정보를 받거나 더 나아가



애플이 인공지능(AI) 스피커 경쟁에 뛰어들면서 음성인식 AI의 거실 점령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애플의 무선 AI 스피커 ‘홈팟’.

사진제공 | 애플

조명 등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팟은 오는 12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349달러다.

애플의 가세로 AI 스피커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AI 스피커 시장은 아마존의 ‘에코’와 구글의 ‘구글홈’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터치스크

린을 달아 화상통화까지 가능한 에코의 새로운 버전 ‘에코 쇼’를 공개하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해의 뿐 아니다. AI 스피커 시장경쟁은 국내에서도 뜨겁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국내 최초의 AI 기기(스피커) ‘누구’를 내놓으며 시장을 주도했다. KT는 올해 초 IPTV 셋톱박스형 제품 ‘기가지니’로 맞불을 놔다. 최근엔 음악 감상이나 날씨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홈 사물인터넷(IoT) 조작과 음식배달, 쇼핑 등으로 빠르게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기업들도 스피커형 AI 제품을 준비하면서 경쟁에 불을 지필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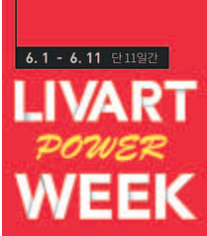
네이버는 ‘클로바’가 적용된 AI 스피커 ‘웨이브’를 올 여름에, 카카오도 3분기 경 스피커형 AI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새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새 운영체제 ‘iOS 11’도 공개했다. AI 비서 시리의 경우 답라닝을 통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리바트, ‘파워 세일’ 진행…최대 40% 할인 혜택

현대리바트가 11일까지 전국 90여 개 리바트스타일샵과 대리점에서 ‘파워 세일’을 연다. 침실·소파·식탁 등 주요 가정용 가구 인기 상품에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공기순환기와 커피 머신을 증정한다. 또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락앤락 보냉백을 선착순 제공한다.



경제현장.jpg

이북식 인절미 ‘이티떡’ 맛보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10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경기 떡집’ 팝업스토어를 연다. 재료들 매일 직접 볶고 찐다 빻아내는 전통방식의 떡집으로, 토종 찹쌀 인절미의 길에 거피 찰소를 붙여 만든 특이한 모양의 이북식 인절미 ‘이티떡’이 대표 제품이다. 최대한 명성만 원작을 비롯한 직원들이 6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이티떡’을 소개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전국어린이코딩대회 입상자 발표

14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시상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주)와이즈교육이 주관한 제1회 전국어린이코딩경진대회의 입상자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압두십 심사위원장은 “주제적합성, 창의성·독창성, 알고리즘 이해, 프로그램 완성도 및 디자인 등의 요소를 평가해 최종 입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4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5월27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어린이 코딩경진대회에서 코딩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제공 | 와이즈교육

(등문초), 남은성(창춘초), 도경민(등마초), 박성준(서현초), 박수빈(탄방초), 박시아(양진초), 박지홍(삼어초), 송상준(서동초), 심민재(학동초), 이도연(오선초), 이소연(새샘초), 이정형(동평초), 장준영(청원초), 정예림(대야초)

〈초등5~6학년〉
대상 신영초(백제초) 금상 김승기(대성초), 이겸(부원초) 은상 김해인(정발초), 유예주(교동초), 정은후(광교초) 동상 김동민(호수초), 박진우(여도초), 송혁준(수월초), 이시우(금빛초), 조호성(내해효초) 장려상 강영재(복수초), 권민영(일죽초), 김동민(호계초), 김동현(계남초), 김민규(부용초), 양태이(가운초), 이진희(우림초), 이동훈(고창초), 이지우(진흥초), 임지훈(포산초), 임태영(미장초), 정현승(용산초), 최지훈(장덕초)

〈심사위원단〉
압두십(심사위원장·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최보기(북 캄plist·작가), 김삼주(호수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윤혜진(서울 신가초등학교 교사), 황규용(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 총재), 박수경(창의교육연구소 소장)

이랜드그룹의 혁신…‘투 트랙 전략’ 빛나네

아동복사업 통합 ‘규모의 경제’ 실현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소유·경영 분리

창업투자센터·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자리 구축 조직문화 혁신안 발표



이랜드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 짓고, 사업부 간 포트폴리오 조정에 전격 나섰다. 유통사업 법인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법인인 이랜드윌드가 운영하던 아동복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이랜드리테일의 아동PB(자체브랜드)와 아동복 사업부분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7개 아동PB 운영을 통해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이랜드리테일이 로열컬즈·유솔·코코리마 등 총 9개 브랜드를 통해 연간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랜드윌드 아동복 사업부분을 영업양수하면서 아동복 사업 부문에서 국내 최대 브랜드와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법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아동복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와 사업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대형 SPA매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인복과 달리 아동복은 중·소형 매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유통점 내 다수의 아동복 브랜드들과 동시에 입점되면 집객 효과가 더욱 높아질뿐 아니라 외형 확장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랜드는 이랜드윌드·이랜드리테일·이랜드파크 순으로 이어지던 기존 체계를 이랜드윌드에 종속해 수평 지배하는 회사로 바꾸고, 이랜드윌드 내 속해 있는 패션 사업부도

완전히 분리시켜 사업형 지주회사에서 순수 지주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랜드리테일을 단순화해 상장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랜드그룹은 더 좋은 일자리 구축을 위한 ‘조직 문화 7대 혁신안’도 발표했다. ▲일과 가장 양립을 위한 자체 근로 감독센터 신설 ▲퇴근 후 업무 차단 ▲2주 휴식 의무화·전직원 리프레쉬 제도 ▲우수 협력사 직원 대상 자사 복리후생 제도 확대 ▲이랜드 청년 창업투자센터 설립 ▲출산 장려를 위한 배우자 2주 유급 출산 휴가 ▲통합 채용 등 채용 방식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그룹 내 직원들과 우수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이랜드그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랜드그룹 측은 “여러운 과정을 함께해 준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이 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자체 근로 감독센터를 조직, 내부에서 운영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최고의 회사가 되게 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캐리비안 베이 ‘클럽 디제이 파티’로 오세요

6월10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축제
플라잉보드 월드 챔피언쇼 불만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 베이가 6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여름 축제 ‘메가 웨이브 페스티벌’을 연다.

우선 지난해 여름에는 매주 주말에 열던 ‘클럽 디제이 파티’를 올해는 10일부터 8월6일까지 야의 파도풀에서 매일 진행한다. 클럽 디제이 파티를 위한 특설 무대에서는 쿼텟, 올즈렐, 프라잇 등 유명 클럽 디제이들의 화려한 디제잉과 댄스쇼가 열린다.

파티가 열리는 동안 폭 120m, 길이 104m의 야의 파도풀은 수상 액티비티 서핑 체험장으로 변신한다. 일반고객 이용시간 이후에 특별 진행하며 전문강사로부터 당일 교육을 받은 후 파도풀에서 서핑을 체험할 수 있다. 서핑 체험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3만원의 별도 체험료가 있다.

16일부터 7월9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수장으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보드 월드 챔피언쇼’가 파도풀에서 하루 3회 진행한다. 클럽 디제이 파티, 플라잉보드 월드 챔피언쇼 등의 자세한 공연 시간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축제 ‘메가 웨이브 페스티벌’ 모습.

사진제공 | 에버랜드

인 가능하며,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한편, 캐리비안 베이 와일드리버풀도 10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 좋은 ‘워터플레이그라운드’로 운영한다. 수심 1m의 풀에 수상징검다리부터 동물 모양의 대형 튜브까지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비치한다.

에버랜드는 4월부터 파도풀, 메가스틀, 타워 부메랑고 등 야외시설을 순차적으로 오픈해 왔고, 3일에는 아쿠아루프, 워터볼슬레이 등 고객들에게 인기 많은 야외 스릴 어트랙션을 개장하는 등 물놀이 시설을 전면가동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 개최
예정, 9월10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예정, 9월10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예정, 9월10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마스터 오브 뷰티’ 콘셉트로, 브랜드와 어울리는 신제품 및 프로모션 제안이 주요 골자다. 대학생 타겟의 드럭스토어 채널 신제품 및 프로모션, 뉴노멀시대 소비자를 위한 신제품 및 프로모션 제안,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신제품 및 프로모션 제안 중 선택하면 된다.

1차 과제는 9월10일까지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며, 1차 합격자는 10월31일 열리는 2차 본선경쟁PT에 참여할 수 있다. 1~2차 기획안을 종합평가해 총 7개팀을 선정한다. 시상은 대상(1개팀) 상금 500만원과 홍릉 왕복항공권, 금상(1개팀) 상금 300만원, 은상(2개팀) 상금 100만원, 동상(3개팀) 상금 50만원 등이다. 대상 수상자에게 인턴십을 통해 마케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이상의 입상자에게는 애경산업 공채 지원서 서류전형 통과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CEO는 지금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혁신방안 토론회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사진)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최근 서울 서대문 농협본사에서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김회장은 지난 4월 연임 확정 이후,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익성 강화 등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농협금융이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 제도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을 강조해왔다. 이에 농협금융 전 계열사는 2020년까지 업계 선도급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번 토론회가 지난 1개월 간 검토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 선도사와의 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달 완료하고, 7월 초 모든 법인이 동시에 혁신방안을 시행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농협금융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만큼, 이제는 농협금

용을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의 반석 위에 올려 우리 농업·농촌에 든든한 힘이 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했다.

정정욱 기자

김도진 기업은행장, 직원들과 번개 모임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이 최근 서울 을지로 인근 삼겹살집에서 직원 35명과 ‘번개의 신’ 행사를 가졌다. 특정 지역 또는 일정 테마에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은행장이 직접 번개 모임을 제안하고 직원들과 편안하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월요일이 힘든 직원, 내가 책임진다’는 테마로 열렸다. 김 행장은 “월요일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해법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해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